아동상담 전용전화 1577-1391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29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지

|2007. 봄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 전화 : 02-558-1391 | 팩스 : 02-558-1339
| URL : korea1391.org | 발행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행인 : 이호균 | 발행일 : 2007. 3 | 편집인 : 서태원, 이계화

## 2007년도 한국 아동보호 사업의 방향

아동은 인류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모든 사회공동체의 초석이다. 건물의 기초를 잘못 다지면 작은 지진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과 같이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회는 다양한 경제 혹은 사회적 요동이 있을 때 지탱 할 힘을 갖지 못한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단기간에 성공한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곤고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던 부모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며 현재 우리의 다른 모습을 돌아보면 아동에 대한 투자 방식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은 모여 놀기보다 방안에 갇히게 되고 함께 공부하기보다 학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는 요보호아동을 시설에서 수용하여 양육하거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여 극히 구호차원의 후원금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수준의 아동보호체계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아동전문가들이 아동학대예방협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들추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2000년에 들어서서야 극히 적은 금액의 예산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정부가 민간기관에 지정 위탁하였다. 초창기 전국 17개로 시작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현재 43개로 늘어났다. 다른 한편, 소년소녀가장으로 방치되어있던 아동들을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전국 시 · 도에 설치하고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양육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다. 2007년도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여 정부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숫자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방학교실 혹은 방과후교실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사회사업, 교육복지시범학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에서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어 학교와 민간단체의 협력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위스타트 운동과 삼성복지재단의 지정기탁금으로 자원봉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아동지킴이 희망네트워크 등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의 권리지킴이 내지 아동보호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지역네트웍 사업 진행으로 2007년도 한해에는 다양한 아동보호 사업의 실험에 대한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역사회와 학교, 정부,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적 보장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를 만드는 씽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발전에 기여 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굿네이버스 회장
**이 일 하**



# FOCUS

## 내 아이 사랑법...

사교육비, 조기영어교육, 기러기 아빠 등등...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말들은 모두 자녀양육과 관련된 것들이다.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한 부모들의 노력이 대단하다. 이런 노력들은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모들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 TV나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기사 중 하나는 지나친 자녀양육 방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간이므로 아동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동의 권리는 꼭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부모의 욕심, 적절한 양육법과 훈육법의 무지, 갖가지 불평등한 사회 환경 등은 아동의 권리실현을 이상적인 것으로만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를 지키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부모교육에 관한 온갖 강연회를 부지런히 쫓아 다닌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의문뿐인 경우가 많다. 내 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좌절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된다. 왜 그 많은 양육이론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훌륭한 유아교육이론이라도 내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론은 어떻게 보면 다만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그 이론들을 참고하여 내 아이를 잘 관찰하고 파악하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나만의 양육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인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내 아이 사랑법』도 이러한 많은 이론 중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아이 사랑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다루었고 이 사례들을 재연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 아이 사랑법』은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부모들의 훈육법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부모 스스로 진단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적절한 양육법과 훈육법을 설명함으로써 쉽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표 참조).

### Ⅰ. 네가지 유형

첫 번째, 야단치는형.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무조건 야단만 치는 부모.
두 번째, 무관심형. 요즘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아이를 무관심하게 방임하는 양육태도.
세 번째, 때리는형. 체벌을 통해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는 부모.
네 번째, 무시형.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않고 장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의 기분을 무시하는 부모.



### 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적절한 양육법과 훈육법

**1. 자녀와의 대화법**

① 잘 들어주기(경청)
② 속상한 느낌 받아주기(감정 수용)
③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기(행동 통제)
④ '나 메시지'
⑤ 말과 표정의 일치

**2.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 – 일반적인 상황 재현 및 대처법**

① 칭찬하기(칭찬하는 방법)
② 맞벌이 부부일 경우 퇴근 후 아이가 엄마에게 칭얼대거나 떼를 쓸 때 대처법
③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대처법(아이의 말 들어주기, 설명하기 등).
④ 체벌하지 않고 훈육하기.
⑤ 적절히 야단치기
이 외에도 '생각하는 의자', '혼자 있게 하기', '행동에 대한 계약' 등.

상기와 같이 제작된 『내 아이 사랑법』은 1차적으로 전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훈육방법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민간협력체계에 배포되었고, 아버지 대상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교육의 필요성으로 2007년도에는 국방부, 행정기관 등에 추가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대사인 차인표씨는 2006년 아동학대예방 공익광고에 이어 이번 부모교육영상물 촬영에도 흔쾌히 출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교육 영상물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해 왔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서 대본을 감수해 주신 이원영 교수님(중앙대 유아교육과), 이재연 교수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께도 감사를 드리고 좋은 자료를 제공해준 굿네이버스 아동학대문제연구소에도 감사드린다. 『내 아이 사랑법』이 부모,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Focus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홍보팀 **최석현**





# 상반기 주요사업소개

## 교육홍보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29개 쉼터보호아동에게 생활지원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2월 중 '쉼터보호아동 정서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 한국암웨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월에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대만과 싱가포르로 견학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해외 아동보호체계를 이해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정책 및 사업에 적용하고자 한다.

• 아동보호사업 정책에 있어 현안이 되고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보장과 친권개입에 관한 기획포럼을 5월에 개최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 상담연구팀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중 소장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및 협력체계구축 방안 등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관하여 공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원활한 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DB upgrade작업이 2007년 3월에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산업무 진행 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고 현장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DB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upgrade작업 완료와 더불어, 새로 변경된 전산시스템 내용을 공지하고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수교육'을 4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200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현황을 분석하고 아동보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특화사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국 42개 지방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상담전용전화(1577-1391)를 운영하며,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 129, 경찰서나 타기관으로부터의 의뢰, FAX, E-Mail, 방문 및 서신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접수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를 사정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 · 제공하며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사례에 개입하는 주된 업무 이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의 권리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사업명 | 내 용 |
|---|---|---|
| 서울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정기회의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말 사례개입전략 및 현안 논의 실시 |
| | 유관기관 평가회 |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월 말 '06년 사업평가, '07년 사업계획 |
| | 기타) 현장학습, 부모교육 | |
| 서울시동부 | 피학대아동 집단상담 |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 델타샌드, 체험식 독서논술 등 실시 |
| | 아동학대예방세미나 | 아동관련 상담원을 대상으로 모래놀이치료세미나 실시 |
| | 기타) 협력기관 구축사업 | |
| 부산시 | 아동집단상담 | 일반아동,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비행 저연령화 방지 및 아동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 | 아동지킴이 | 아동지킴이 모집(1월)<br>아동지킴이 교육 및 간담회(2월 중 각1회)<br>아동학대예방캠페인참여(2~3월 중 3회)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
| 대구시 | 가족지킴이를 활용한 피학대가정의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원가정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지킴이 양성 ·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개별가정방문활동 및 다양한 학대후유증 최소화 프로그램 실시 |
| 인천시 | 아동학대가해자 집단프로그램 「참부모되기」 | 아동학대 가해부모를 대상으로 가해부모들에게 학대문제, 양육태도, 책임감 등을 인지시키고, 행동변화를 위한 의지 강화, 긍정적인 감정표출, 아동양육에 관한 기술을 습득 |
| 광주시 | 멘터링프로그램 | 피학대아동과 자원봉사자 결연, 정서적 지지 및 학대모니터링 활동 수행 |
| | 이동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3~4월 중 총 16강으로 구성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고 아동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야릇한 느낌', 부모교육 '좋은 부모되기' | |
| 대전시 | 한화연합프로그램 | 한화대전계열사 사회공헌팀의 지원으로 피학대아동 및 잠재아동에게 눈썰매타기,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
| | 집단상담치료 | 정신지체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원만한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를 위해 사회기술훈련,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 실시 |
| | 기타) 학교사회사업 집단상담프로그램, 인형극,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아동지킴이, 가정지원사업, 희망나눔학교 겨울방학교실 | |
| 울산시 | 성교육 강사양성과정 | 1~2월 중 아동권리 성교육 강사단 확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운영 |
| | 신나는 토요프로그램 | 소외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단체활동 실시 |
| | 기타) 아동학대가해자프로그램, 유관기관간담회, 아동보호기관 및 시설협의체 운영, 아동권리성교육, 아동지킴이단, 나란히 결연사업, 겨울방학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사업명 | 내 용 |
|---|---|---|
| 경기도 | 학대행위자 자조모임 | 피학대아동부모, 학대행위자 중 참가희망자에 한해 모임 실시, 학대행위자 치료와 더불어 아동학대예방, 가정 해체 지양 |
| | 인형극 | 미취학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법 교육, 아동이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의식 신장,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CRA', 'CES', 신고의무자교육, 아동지킴이, 문화체험 | |
| 경기북부 | 가정지원사업 | 아동학대재발예방과 가족통합을 위한 물리적 지원사업 |
| | 방학교실 | 방임 고위험군 급식지원 대상 아동과 3주 동안 학교 교실 내에서 함께하는 겨울방학 교실 프로그램으로 균형 잡힌 중식 및 간식제공, 집단 활동, 특기교육, 문화체험 및 야외활동,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 실시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CES',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아동지킴이 | |
| 강원도 | 피학대아동사후관리 「친구같은 선생님」 |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 아동학대 발생여부, 모든 가족구성원 가정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학대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
| | 라디오1분캠페인 |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사례, 좋은 부모 되기, 아동양육 관련내용으로 라디오 캠페인 실시 |
| | 기타] Case conference, 춘천가정폭력예방협의회,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
| 강원동부 | 멘토링프로그램 |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학대아동과 전문 멘터 자원봉사가자가 일대일 관계형성, 아동의 자아성장 도모 |
| | 아동지킴이단 | 영동지역(8개 시 · 군) 아동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일반인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증진,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 및 심각성 부각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인형극단운영, 캠페인활동 | |
| 충 북 | 아동집단활동 (Food Therapy) | 그룹홈 및 원가정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친숙한 재료인 음식을 활용한 집단 활동 |
| | 어린이지킴이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지킴이단(자원봉사) 모집, 교육, 고위험 가정(피학대아동가정포함) 방문하여 학대발생여부 모니터링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양성, 아동학대예방교육, 겨울나들이 | |
| 충 남 | 신고의무자교육 | 신고의무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충남교육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 아동학대예방교육 편성요청 |
| | 인형극 | 기관당 1회 인형극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수의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내용 전달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아동지킴이, 방학교실 | |
| 전 북 | 피해아동 학습 및 가사지원 서비스 | 피학대아동 학습 및 가사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모집 · 교육, 서비스제공 |
| | 방학교실 | 결식아동을 위한 집단활동, 야외활동, 특기교육 등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CES', 인형극, 피해아동 멘토링 서비스 | |
| 경 북 |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재애착 사업 | 아동학대예방 및 원가정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자녀(아동)를 둔 가족에게 재애착 현상과 화목 유도 |
| | 어린이 멘토지킴이 「토이」위촉 및 활동 |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자를 전문교육을 통해 훈련, 1 가정(아동) 대 1인 지킴이 배정, 아동에게 실질적 멘토 역할 수행 |
| | 기타] 피학대아동지원집단상담 | |
| 경 남 |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 2~3월 중 프로그램 진행 실무자와 강사 섭외, co-leader 및 mentor, 참여대상자(학대행위자) 모집 |
| | 현장체험프로그램 | 창원지방검찰청, 창원한마음병원의 지원으로 피학대아동에게 희망이 자라는 체험활동 (ex.영화관람) 제공 |
| | 기타]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아동지킴이 | |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사업명 | 내 용 |
|---|---|---|
| 제주도 | 빙새기노형 지역아동센터 | 피학대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방임 등 재학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후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 | 밑반찬지원사업 | 자원봉사자를 통해 피학대아동가정에 밑반찬 및 생필품 지원 |
| | 기타]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
| 서울강서 | 인형극 | 지역별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원에서 인형극을 통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 | 아동지킴이 | 원가정에서 보호중인 피학대아동 멘토서비스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CES', 신고의무자 교육, 일반인 교육, 방학교실, 캠페인 | |
| 서울영등포 | 아동힘키우기서비스 | 6세~7세 아동의 수준에서 '권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할 때 대처하는 능력 키워줌, 해부학적 인형, 그림판 교구 활용 |
|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 지역사회 주민의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공공장소 및 기업체에서 사진전, 서명캠페인 진행 |
| | 기타] 방학교실 | |
| 서울성북 | 인형극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성학대예방 교육 실시 |
| | 우리이웃학교 | 저소득방임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사회복지프로그램진행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CES',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아동지킴이, 공부방, 방학교실, 경제적 지원 | |
| 서울마포 | 수호천사사업 | 수호천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지원, 방문상담, 학습지도, 아동학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단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1인 1취미활동을 지원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 | 청소년기자단 | 아동학대예방캠페인서명참여자(아동지킴이)를 대상으로 월 1회 웹진 제작, 발송하고, 기관홈페이지에 격주로 아동학대 관련자료 및 이슈 게재 |
| | 기타] 나란히결연후원, 후원물품지원, 문화행사연계 | |
| 인천북부 | 인형극 |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 실시, 부모, 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 교사의 경우 통신교육 포함) |
| | 방학교실 |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내 집단상담, 학습지도, 야외활동, 특별활동이 필요한 방임아동 선정, 3개교 대상으로 겨울방학교실 진행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CES' | |
| 경기성남 | 학대행위자 집단치료 프로그램 |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양육방법 교육, 2집단을 8회 실시 |
| | 방학교실 | 초등학개 2곳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고위험군 아동 선별, 2주간 집단 활동, 특기활동, 야외활동, 문화체험, 개별상담, 가정방문 제공 |
| | 기타] 피학대아동대상 집단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교육 'CES', 아동지킴이 | |
| 경기고양 | 학교사회사업 | 방학교실에 참여한 학교 2곳을 선정하여 개별상담(성격검사 등), 집단상담 실시 |
| | 가정지원사업 | 피학대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물리적 지원 및 가정봉사지원 |
| | 기타] 아동집단상담,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인형극, 아동지킴이, 방학교실 | |
| 경기부천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집단 및 개별치료 | 지역사회의 저소득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아동의 문제 파악,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선별, 사정하여 치료서비스 제공 |
| | 현장체험프로그램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주제로 한 집단 활동을 통해 아동(초등학생) 스스로 인권의 주체성을 갖고 권리를 주장하도록 지원 |
| | 기타] 성학대예방 인형극 | |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사업명 | 내 용 |
|---|---|---|
| 강원원주 | 아동지킴이 | 아동지킴이 조직을 통한 지역 내 빈곤 및 방임아동대상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 | 방학교실 | 결식 및 방임 고위험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방학 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CES', 인형극 | |
| 충북북부 | 집단상담프로그램 | 피학대아동 중 초등 고학년아동 대상으로 Y.Q.M.T프로그램 실시 |
| | 자연체험프로그램 | 피학대아동으로 지역자연환경봉사단체 '수피조아' 연계, 자연 및 생태체험 |
| | 기타] 캠프 및 견학프로그램 | |
| 충북남부 | 아동집단상담 |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 |
| | 방학교실 |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 도모 |
| | 기타] 아동지킴이 | |
| 전북동부 | 아동지킴이 발대식 | 관할지역내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지킴이발대식을 갖고, 학대사례 발굴 및 예방활동 홍보 |
| | 방학교실 | 결식아동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 사회성 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 제공, 집단활동, 특별활동, 야외활동, 문화체험, 현장학습활동 실시 |
| 전북서부 | 아동권리 및 교육사업 | 전문 강사양성 및 교육기관 선정, 아동학대예방교육 |
| | 기타] 아동학대예방 학교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 |
| 전남목포 | 예비부모교육 | 고3학생에게 아동특성 이해 및 발달과정 교육, 아동학대를 사전예방 |
| | 인형극 | 5세 이하 아동에게 성학대 예방과 관련된 인형극 시연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CES', 방학교실 | |
| 경북안동 | 감싸주기모임 (wrap-around 회의) | 아동 관련 주위 자원이 모여 아동,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회의진행 |
| 포항 | 아동지킴이 | 피학대아동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원, 정서적 지원 |
| | 학교사회사업 | 4개교 학교부적응아동 20명 선정하여 PAPCM 프로그램으로 지원 |
| | 기타] 아동학대예방교육 'PAPCM', 'CES', 신고의무자교육, 일반인교육, 아동생계비지원, 방학교실, 캠페인 | |
| 경북구미 | 소나무야!놀자! | 보호자와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농촌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문화체험, 학습제공, 중식제공, 예절교육, 또래집단활동, 자아성장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방임을 예방 |
| | 행복가정만들기 프로젝트 |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행복가정만들기 프로젝트]로 명명, 피학대아동의 사진전시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 부각을 지양하고 [행복가족사진 콘테스트] 행사 실시 |
| 경남서부 | 치료레크레이션 | 피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치료레크레이션 실시 |
| 서귀포 |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 서귀포시청, 교육청, 보육연합회와 연계한 아동학대예방교육 |
| | 아동지킴이캠페인 | 월 2회 아동학대캠페인 및 서명운동 진행 |



# 아동학대행위자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6년 실시한 아동학대행위자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참 좋은 부모 되기 모임』(이하 참부모 모임)은 관할지역내(수원, 용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신고 된 가정 중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회적 위축, 정서적 불안정, 강박, 우울증,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행위자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참부모 모임은 총 2차로 각 8회씩 24명의 대상에게 진행되었는데 1차 대상은 일반학대행위자, 2차 대상은 알코올남용학대행위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퇴근 후 7시~9시,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집단 교육 및 상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내용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회 기 | 구 분 | 프로그램내용 | | 타겟 학대위험요소 |
|---|---|---|---|---|
| | | 1차 일반학대행위자 | 2차 알코올학대행위자 | |
| 1 | 집단형성 | 집단계약 및 친밀감 형성 | | 고립된 지지체계 |
| 2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통찰 | 아동발달 및 부모로써 나에 대한 이해 | 아동발달 및 부모로써 나에 대한 이해와 아동양육방법 | 미성숙한 양육태도 개선 |
| 3 | | 건강한 아동양육 방법 | 음주가 나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 | |
| 4 | 비폭력적 의사소통 훈련 | 비폭력 의사소통 훈련 | | 부족한 자기주장 |
| 5 | | 자녀와 함께하는 연극놀이 | | |
| 6 | 문제해결 훈련 및 변화계획 | 건강한 음주 습관관리 | 재음주 고위험상황 대처 훈련 | 알코올 남용감소 |
| 7 | | 분노조절훈련 | | 공격성 감소 |
| 8 | | 변화계획 및 사회지지망형성 | | 고립된 지지체계 |




【1 · 2차 학대행위자 프로그램 모습】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대행위자들은 처음 참여소감을 나눌 때 대체적으로 '착찹하다', '내가 왜 여기에 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목적이 아동학대행위자였던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부모로써의 역할 수행을 돕고 가족 기능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은 〈참부모 모임〉을 통해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받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아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대행위자들은 부모로써 뿐만이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단기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참여한 모든 학대행위자가 변화된 것은 아니었으나 사후(자조) 모임을 실시하면서 계속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규 프로그램 후 학대행위자들의 요청으로 두 번의 사후(자조)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교육대상자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가족 마사지"를 실시했는데 부부나 부모자녀 간 신체적 접촉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후(자조)모임 – 가족 마사지】

두 번째는 1, 2차 전체에 참여한 학대행위자들과 자녀들이 함께 2006년 가족심리 캠프 "나와 가족을 찾아가는 심리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심리캠프는 심리운동치료, 부모 MBTI 검사, 아동 그림검사 및 평가, 사이코드라마, 웃음치료 등을 통해 부모 자녀 간,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가족심리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후(자조)모임 – 2006년 가족심리캠프】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나미희 팀장



# 우리아리의 2007 다짐



**이희나**(가입일:2005. 8.)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간이므로 아동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이 아동들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소유물과 같이 아이를 다루는 일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행동들 속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 등 대중매체들(드라마, 영화, 시트콤, 시사채널...)속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들 속에 비춰진 학대사례를 파악하고 언론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며 아동의 권리 인식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것이며 나는 이를 위하여 열심히 동아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임헌제**(가입일:2005. 8.)

언론 모니터링 동아리를 시작 한지도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동안 부족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올 해 부터는 동아리 회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언론 모니터링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가입일:2006. 8.)

아동학대 언론모니터링이라는 동아리의 취지와 목적처럼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아동학대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 문제제기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하여 단지 아동학대가 우리의 일생에서 마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에서 아동학대가 우리사회의 문제점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윤희**(가입일:2006. 5.)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의 권리를 더욱 생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2006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방문간호사제도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모형개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05년 11월 방임으로 인해 사망한 권모군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책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한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장 인프라를 갖추고 방문간호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20개소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시범사업은 전국 20개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으며 방문간호사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연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보건소 마다 평균 4명의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의료특례수급, 모부자가정 아동 등 2680명(1991가구)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총 15.7%(422명)에서 학대사례 0.2%(7명)와 잠재위험사례 15.5%(415명)가 발견되었다(대한간호협회, 2006).

아동학대 및 방임이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되어 발견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서비스를 통해 아동 환경 모니터링과 아동성장발달 분석 등을 수행한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은 아동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우)135-515
781-46 Yeoksam 2-dong, Gangnam-gu, Seoul, Korea 135-515
TEL : +82-2-558-1391
FAX : +82-2-558-1339
URL : korea1391.org
E-mail : ncpa@korea1391.org
ARS (피학대아동 후원) : 060-700-1391